

- 주요 뉴스: 중국 20차 당대회,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 및 대만 통일 등을 강조
 -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선제적인 금리인상 지지. 달러화 강세 둔화 예상
 - ECB 부총재, 인플레이션 수준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
 - 영국 신임 재무장관, 경제 안정에 초점. 골드만삭스는 영국 성장률 전망을 하향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은 연준의 통화긴축 강화 가능성 등이 배경

주가 하락[-1.6%], 달러화 강세[+0.5%], 금리 상승[+14bp]

- 주가: 미국 S&P500 지수는 국채금리 상승에 따른 투자심리 악화 등이 영향
유로 Stoxx600 지수는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0.1% 하락
- 환율: 달러화지수는 안전자산 선호 강화로 인한 매수세 유입 등이 원인
유로화와 엔화 가치는 각각 0.2%, 2.3% 하락
- 금리: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는 연준의 최종금리 상향 예상 등이 반영
독일은 일부 ECB 인사들의 양적 긴축 필요성 언급 등으로 15bp 상승

※ 원/달러 환율(주간) 1.1% 상승, 한국 CDS 상승

		10/14일	10/7일	전주말대비			10/14일	10/7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3,583.1	3,639.7	-1.55%	국채 금리 10y	미국	4.02%	3.88%	14bp
	유럽	391.31	391.67	-0.09%		독일	2.35%	2.19%	15bp
	중국	3,072.0	3,024.4	1.57%		영국	4.34%	4.24%	10bp
	일본	27,091	27,116	-0.09%	CDS 5y	한국	62bp	58bp	4bp
	한국	2,212.6	2,232.8	-0.91%		중국	115bp	104bp	11bp
환율	달러지수	113.31	112.80	0.46%	위험 지표	EMBI+	478	459	19bp
	유로화	0.9722	0.9744	-0.23%		VIX	32.02	31.36	2.10%
	엔화	148.67	145.25	-2.30%		WTI유	85.61	92.64	-7.59%
	위안화	7.1925	7.1160	-1.06%	원자재	구리	342.4	338.7	1.09%
	원화	1,428.5	1,412.4	-1.13%		금	1,644.5	1,694.8	-2.97%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NDF 환율 변화는 스왑포인트 감안한 전일 현물환 증가 대비.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중국 20차 당대회,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 및 대만 통일 등을 강조

- 시진핑 주석은 3연임을 공식화할 20차 당대회(10/16~22일) 개막식 연설을 통해 향후 5년(22~27년)의 주요 정책방향과 지도이념을 제시. 이번 연설은 5년 전에 비해 경제 정책 및 대외 관계 관련 어조가 전반적으로 강해졌다는 평가가 다수
- 먼저 중국식 사회주의 현대화를 강조했는데, 이는 시장경제 시스템을 받아들이는 가운데 중국 고유의 사회주의 정치 체계를 유지하겠다는 의미. 이를 달성하기 위해 분배와 평등을 강조하는 공동부유(共同富裕)를 실현하겠다는 의지 피력
- 또한 미국의 첨단기술 규제 등을 겨냥해 높은 수준의 과학기술 자립 및 자강 실현을 가속화하고 이를 위한 역량 결집에 나서야 한다고 언급. 다만 외국인 투자자를 의식하여 개방정책과 민간부문 경제에 대한 지지 의사도 재확인
- 한편 대만과의 통일로 하나의 조국을 이루어야 하며, 이를 위해 무력 사용도 피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표명. 특히 대만 문제 해결은 중국인의 일로 중국인 스스로 결정해야 한다고 밝혀 미국의 개입에 대한 반대 의사를 피력. 한편 인민해방군을 세계 수준의 군으로 육성하기 위해 투자를 강화하겠다고 천명
- 블룸버그는 중국이 경제발전을 최우선 하면서도 안보의 중요성도 강조하고 있다고 평가. 또한 다수의 매체들은 중국이 경제 및 군사 등의 측면에서 미국과의 갈등이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진단. 다만 일부에서는 시진핑 주석의 집권 장기화에 대해 내부 불만이 증대될 수 있다는 의견도 제시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미국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 선제적인 금리인상 지지. 달러화 강세 둔화 예상

- 블라드 총재는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신속한 정책 결정을 선호하며, 9월 소비자물가 발표에도 연준이 현행 금리인상 경로를 반드시 높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발언. 다만 12월 0.75%p 인상 가능성은 높아졌다고 언급. 달러화 강세의 경우 금리인상을 멈출 시기에 근접하면 기존 추세도 약해질 것으로 전망
- 한편 연준의 쿡 이사는 인플레이션 수준을 떨어뜨리기 위한 통화긴축 지속을 지지. 지금은 노동시장이 강하므로 인플레이션 억제에 집중해야 한다고 설명

■ ECB 부총재, 인플레이션 수준을 낮추기 위해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할 방침

- 데 쿼도스 부총재는 높은 인플레이션과 기술적인 경기침체를 대비하고 있으며, 시장 신뢰를 위해 인플레이션 수준을 낮출 것이라고 발언
- 프랑스 중앙은행 빌루아 드 갈로 총재는 에너지 보조금이 일시적으로 인플레이션을 낮출 수 있으나 향후 더욱 높은 인플레이션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 네덜란드 중앙은행 뉓 총재는 중립금리 수준에 도달하면, ECB의 금리인상은 중단될 것으로 예상. 다만 그 때가 되면 대차대조표 축소를 시작할 수 있다고 부연

■ 영국 신임 재무장관, 경제 안정에 초점. 골드만 삭스는 영국 성장률 전망을 하향

- 헌트 장관은 영국 경제가 그 동안 일자리 확대 및 기업 성장 등에 초점을 두었는데, 다소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언급. 이제는 경제 안정을 기초로 성장을 도모하는데 주력하겠다고 밝혀 일부 증세 가능성을 피력. 영란은행 베일리 총재는 인플레이션 대응을 위해 보다 강력한 금리인상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 골드만 삭스는 영국 경제가 감세안 철회로 긴축적인 금융여건이 지속되는 가운데 성장 모멘텀이 약화되면서 오히려 경기침체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고 분석. 이에 내년 성장률 전망을 하향 조정(-0.4%→-1.0%)

■ 중국 인민은행 총재, 경기부양을 위한 정책을 추진할 계획

- 이강 총재는 실물경제의 성장을 지원하기 위해 통화정책을 좀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이라고 강조. 또한 인프라 및 주택건설의 속도를 높이기 위한 지원을 강조하고, 은행대출 확대를 위해 은행에 대한 유동성 제공도 늘리겠다고 첨언

■ 일본은행 부총재, 최근의 엔화 환율 변화는 과도하게 빠르고 일방적

- 미국 달러화 대비 엔화 가치가 32년 만에 최저 수준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잠재적으로 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다고 언급. 다만 정부의 과도한 엔화 약세 방지 노력과 일본은행의 초완화적 정책에 사이에 불일치는 없다고 평가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10/14 현지시각 기준)

- 중국 9월 소비자물가(전년동월비): 2.8%, 8월(2.5%), 예상치(2.8%)

해외시각 및 외신평가

■ 통화정책과 재정정책 간 상충, 중앙은행의 물가안정 목표 달성의 걸림돌 - 블룸버그

(Tug of War That Markets Fear Is Central Banks Versus Governments)

- 영국 국채시장의 혼란은 경기를 부양하려는 재정정책과 인플레이션을 안정시키려는 긴축적인 통화정책이 충돌한 결과. 확장적 재정정책은 물가상승 압력을 높이고, 이는 중앙은행의 긴축기조 강화와 정부의 상환부담 확대를 초래하기 때문
- 그러나 재정긴축과 금리인상이 병행될 경우 경기침체를 초래할 소지. 정치적 부담으로 재정긴축도 기대난. 이에 중앙은행은 인플레이션 목표를 2% 이상으로 높이는 방안을 수용해야만 할 가능성(GeorgeTown University의 Paul McCulley)

■ 영국 재무장관, 정부의 신뢰 회복 관련 어려움에 직면할 우려 - Financial Times

(Restoring Britain's credibility will be hard for Hunt)

- 영국 정부는 정책 번복으로 신뢰도에 큰 타격. 이에 헛트 재무장관은 정부의 신뢰 회복을 위해 단순히 이전 정책의 철회 뿐 아니라 긴축을 통해 GDP대비 부채비율을 낮출 수 있는지 여부가 중요. 이와 관련 시장의 관심은 부채비율을 떨어뜨리기 위해 구체적으로 어떤 방법이 가능한지에 초점
- 헛트 장관은 증세와 정부지출 축소를 통한 긴축이 가능하다고 제시. 그러나 생계비 위기, 경제 성장을 위한 공공투자의 필요성 및 고물가로 인한 정부지출의 실질적 가치 하락 등을 고려 시 정부지출 축소는 어려울 것으로 판단. 이에 정부의 의지와 달리 긴축은 대부분 증세에 의해서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

■ 미국 증시, 장중 큰 폭의 주가 반등은 향후 더 큰 변동성의 징후 - Reuters

(Massive turnaround for stocks puts traders on alert for more volatility)

- 10/12일 미국 9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예상치를 상회하면서 S&P500 지수가 '20년 11월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으나 이후 저점 대비 5%대 반등. 투자자들이 주가 하락에 대비해 구축해놓았던 헤지 포지션을 차익실현하는 과정에서 반등 압력이 발생하고 여기에 알고리즘 거래가 따라붙은 것이 주된 배경으로 지목
- 일각에서는 주가 상승에 베팅하는 헤지펀드가 크게 증가하지 않은 점을 근거로 금번 주가 반등이 지속되지 못할 것이며 일반적으로 장중 주가의 진폭이 큰 것은 시장이 건전하지 않다는 증거라고 지적((Susquehanna International Group, OptionMetrics)

■ 미국의 높은 인플레이션, 중간 선거에 영향을 미칠 소지 - WSJ

(Inflation and the Midterm Elections)

- 9월에도 경제 전반에서 높은 인플레이션이 확인. 인플레이션이 정점을 통과했다고 가정해도 물가안정과 통화긴축 중단에는 시간이 소요. 그 결과, 경기침체 위험과 초완화적 통화정책 하 투자된 자금의 회수 과정에서 문제 발생 위험이 점증
- 9월 소비자물가는 정치적으로도 큰 반향을 불러올 소지. 정부는 '20년 12월 초당적 9000억달러 규모의 예산안, '21년 3월 민주당의 1.9조달러 규모의 부양책 등이 높은 인플레이션을 유발했다는 비판에 직면할 수 있기 때문
- 통화긴축으로 수요가 감소한 가운데 규제 완화와 같은 공급 확대 정책 대신 새로운 규제 부과, 고용 저해 등 공급 위축 정책을 단행. 에너지 정책도 미국 원유생산 업체들의 생산 독려 대신 對이란, 對베네수엘라 재제를 완화하고 OPEC에 도움을 촉구

■ 신흥국 경제, 다가올 침체 위험에 대비가 요구 - The Economist

(Emerging markets have coped with the rate shock surprisingly well)

- 연준이 고강도 통화긴축에 나서면서 영국 채권시장이 위기에 처해있으나 신흥국 경제는 1980년대 중남미 위기 및 '13년 테이퍼 탠트럼 때에 비해 안정적. 신흥국 전반의 경제 펀더멘털 개선, 외환보유액 확충, 금융시장의 충격 흡수능력 제고에 기인
- 다만, 연준의 큰 폭(1.5%p) 금리인상이 남았고 IMF가 올해 또는 내년 상당 수 국가들의 경기침체 진입을 예측한 점을 감안하면 원자재 가격 상승의 수혜를 입었던 신흥국들도 결국 불안에 처할 소지. 이에 신흥국들은 외환보유액 사용 시점을 적절히 안배할 필요

■ 세계 정책당국, 글로벌 다중위기에 정밀한 위험관리 정책 마련이 중요 - Financial Times

(Global economic warning lights are flashing red)

■ 유로존 경제, 천연가스 수요 억제와 공급 인프라 안정성 확보가 관건 - WSJ

(Winter's Approach Raises Stakes in European Energy Crisis)

■ 신흥국의 선제적 금리인상, 자국 통화가치 방어에 기여 - 블룸버그

(Emerging Markets Hurt Less as Dollar's Wrath Sinks Rich Nations)

금융시장 주요 지표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자료 : Bloomberg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172, E-mail jsjeong@kcif.or.kr